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7. Vol. 20, No. 3, 1-18

아동의 바람과 감정 추론의 발달

양 혜 영 김 혜 리* 김 경 미 구 재 선 박 은 혜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정 명 숙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심리학과

본 연구는 3, 4, 5, 7, 9세 103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주관성과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바람감정 과제의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감정 예측은 연령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남을 해치려는 악의적 바람 성취 조건에서 3, 4, 5세는 부정적 감정을, 7, 9세는 긍정적 감정을 보다 예측하였다. 감정 예측과 감정 이유의 관계를 보면 긍정적 감정은 바람 설명과, 부정적 감정은 행위나 결과 설명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린 아동들은 바람의 부정적 결과에 근거하여 부정적 감정을, 큰 아동들은 바람의 성취에 근거하여 긍정적 감정을 귀인 한 것이다. 감정 반응의 특성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바람의도 과제에서의 수행과 비교해 보았다. 악의적 바람 조건의 긍정적 감정은 바람과 결과의 관계 이해에 근거한 다른 감정 판단과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설명과 정적 관계를 보였고 악의적 바람 조건의 부정적 감정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악의적 바람 조건의 긍정적 감정 반응이 다른 사람의 주관적 마음상태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판단한 결과라면 부정적 감정 반응은 바람보다 상황의 객관적 가치에 따른 어린 아동의 미성숙한 바람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주요어: 마음 이론, 바람, 감정, 바람의 주관성

마음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바람, 감정, 의도 같은 마음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동의 원인인 그 사람의 마음상태를 추론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의 마음상태를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마음현상의 주관성을 언제 이해하느냐에 것으로 주로 믿음, 바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 본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습니다(KRF 2005-079-HM0004)
* 교신저자: 김혜리, E-mail: hrghim@chungbuk.ac.kr

www.kci.go.kr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는 마음이론의 리트머스 검사라고 불릴 정도로 마음이론 연구의 중심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믿음에 비해 단순한 개념으로 취급되어 온 바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Bartsch & Wellman, 1989; Gopnik & Slaughter, 1991; Moses, Coon & Wusinich, 2000; Peterson, 2003; Wellman, 1990; Wellman & Bartsch, 1988; Wellman, Cross, & Watson, 2001; Wellman & Lagattuta, 2000; Wellman & Liu, 2004).

외부 세상에 대한 내적 표상을 요구하는 믿음과 달리 바람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난다. 자연 관찰 연구나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2세만 되어도 아동들은 바람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 2세 아동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를 분석해 보면 원한다(want)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바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다(Bretherton & Beeghley, 1982; Wellman, 1991). 2세 아동은 자신의 바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람과 타인의 바람을 구별할 수 있었다. Wellman과 Woolley(1990)는 2세 아동들에게 수영장에서 노는 활동과 강아지와 노는 활동 중 어느 활동을 원하느냐고 물어본 다음, 어떤 사람이 아동이 선택한 활동과 다른 활동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아동에게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2세 아동들은 대체로 자신이 바라는 활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호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3세들도 사과와 과자가 다른 장소에 있다고 말해 준 다음 다른 아동의 바람을 알려주고 그 아동이 어디로 갈지 물어보거나 혹은 아동 자신의 바람을 물은 다음 어디로 갈지 물어보면 자신과 타인의 바람에 따라 다른 장소를 선택하였다(김혜리, 2005). 2, 3세조차 같은 상황에서 혹은 같은 대상을 보고 사람마다 다른 바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바람이란 마음상태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람이 내적, 주관적 마음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람 개념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다. 바람 개념에서 중요한 한 요소가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다(Astington & Gopnik, 1991). 바람은 내적 상태로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를 이끌지만 바람은 행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 것과 과자를 사는 행위는 다르다. 과자를 사고 나서 실제로 과자를 먹어야만 바람을 충족할 수 있다. 바람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이 충족되었느냐 충족되지 않았느냐 하는 결과다. 바람이 충족되면 그 바람은 사라지고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도 더 이상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람과 결과와의 관계에서 충족된 경우와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사람은 특정한 정서를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바람과 결과가 일치하면 만족하고 기쁜 감정을 갖고, 일치하지 않으면 슬프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다(전명숙, 김혜리, 1999; Astington & Gopnik, 1991; Lagattuta, 2005; Nguyen & Frye, 1999; Rieffe, Terwogt, Koops, Stegge & Oomen, 2001; Schult, 2002; Terwogt & Rieffe, 2003; Wellman, 1990; Wellman & Bartsch, 1988; Wellman & Woolley, 1990; Yuill, 1984; Yuill, Perner, Pearson, Peebhoy & Ende, 1996). 바람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합한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 빠르면 2세부터 나타난다(Wellman & Woolley, 1990). 우리나라 3세 아동도 두 주인공이 같은 동화책을 받아도 동화책을 좋아하는 주인공은 긍정적 감정을, 동화책을 싫어하는 주인공은 부정적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전명숙, 김혜리, 1999).

그러나 3세 같은 어린 아동이 모든 상황에서 바람의 주관성과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www.kci.go.kr

보이는 것은 아니다(Moore, Jarrold, Russell, Lumb, Sapp & MacCallm, 1995). 예를 들어, 수영장을 가고 싶다거나 동화책을 원하는 것 같은 바람에는 전혀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활동이나 선호도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바람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동은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감정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이 비도덕적일 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머리를 공으로 맞추고 싶다는 비도덕적, 악의적 바람에서 어린 아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Yuill, 1984; Yuill, Perner, Pearson, Peerbhoy & Ende, 1996). 악의적 바람의 성취에 3세는 대체로 주인공이 슬프거나 기분 나쁠 것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5, 7세는 주인공이 행복하거나 기쁠 것이라는 긍정적 감정을, 12세는 미안하다거나 죄책감이 들 것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3세는 다른 사람을 공으로 맞추고 싶다는 바람과 결과가 객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의 바람이 성취되어도 주인공에게 슬픈 감정을 귀인 하였다. 그러나 5, 7세는 객관적으로 나쁜 바람과 결과이지만 주인공이 원하는 바람과 결과이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을 귀인 하였다. 5, 7세는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과 상황의 관계로 감정을 판단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 개념의 발달은 부정적 감정의 귀인에서 긍정적 감정의 귀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린 아동의 부정적 감정이 도덕적으로 발달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람 개념의 미성숙한 발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Yuill 등은 도덕적 가치가 들어간 과제를 사용하였지만 도덕적 발달과 감정을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을 아동들에게 요구하였다. 도덕적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동들에게 비도덕적 동기 혹은 결과에 대하여 도덕적 관점에서 감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면, 그들은 개인적 관점에서 주관적인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따른 감정 판단을 요구하였다. Yuill 등은 같은 과제를 사용하여 아동들이 감정 판단을 하기 전에 사전 질문을 통해 도덕적 관점 혹은 개인적 관점을 조정하였다. 악의적 바람의 성취에서 3세는 관점의 조정에 따라 감정 판단이 다르지 않았다. 5세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감정 판단이 달라졌는데 도덕적 관점일 때보다 개인적 관점일 때 주인공에게 행복 감정을 더 귀인 하였다.

어린 아동이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따르는 현상은 도덕적 가치가 관련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 5세 아동은 성 고정관념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바람의 주관성을 무시하였다(Rieffe, Terwogt, Koops, Stegge & Oomen, 2001; Terwogt & Rieffe, 2003). 주인공이 장난감을 고르는 상황에서 주인공의 장난감 선호가 성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의 경우 비행기는 성 전형적인 장난감이지만 인형은 비전형적인 장난감인데, 남자 아이는 원하는 장난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주인공의 감정을 예측하는 과제에서 4, 5세는 전형적인 장난감 선호 조건보다 비전형적 장난감 선호 조건에서 감정 판단을 잘 하지 못 하였다. 4, 5세의 낮은 수행은 주인공의 주관적 바람보다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장난감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아동들은 남자 아이가 인형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비행기 같은 성 전형적인 장난감을 받을 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Rieffe, Terwogt, Koops, Stegge & Oomen, 2001; Terwogt & Rieffe, 2003; Yuill, 1984; Yuill, Perner, Pearson, Peerbhoy & Ende, 1996)을 보면 어린 아동은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www.kci.go.kr

상황에서는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적합한 감정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규준이나 성 역할 같은 가치가 포함되는 상황에서는 바람과 결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을 한다. Yuill 등은 어린 아동의 다른 판단이 바람의 주관성 개념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 한 데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마음이론 과제에 가치가 들어가는 경우 아동의 수행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한다(Terwogt & Rieffe, 2003). 마음이론이 다 발달하였다고 가정하는 성인조차 마음상태 정보보다 바람직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규준적인 문제가 관련된 상황에서의 낮은 수행이 마음읽기 능력의 미숙한 발달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바람의 주관성 개념의 발달적 변화를 흥미롭게 보여준 Yuill, Perner, Pearson, Peerbhoy와 Ende(1996)의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Yuill 등이 주장한 대로 악의적 바람 성취의 부정적 결과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귀인한 어린 아동들이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바람 과제에서는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감정을 판단할 것인가. 둘째, Yuill 등은 당연하게 가정한 결과지만 바람의 주관성 개념이 발달하여 악의적 바람 성취에서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긍정적 감정을 귀인 한 아동들은 다른 바람 과제에서도 높은 수행을 보일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람에 대한 연구는 3세 아동도 자신의 바람과 타인의 바람을 구별하고, 바람의 성취 여부에 따라 적절한 감정을 귀인 할 수 있다는 정도다(김혜리, 2005; 전명숙, 김혜리, 1999). 이에 우리나라 아동들의 바람 개념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 바람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 3, 4, 5, 7, 9세 아동들에게 기존의 다양한 바람 과제들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바람 연구의 한 부분으로 바람의 주관성과 바람과 결과 관계에 대한 이해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바람감정 과제와 바람의도 과제에서의 아동의 수행을 살펴보았다. 바람감정 과제는 주인공의 감정 예측과 감정 이유 질문만을 하였지만 바람의도 과제는 주인공의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바람의 성취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 주인공의 감정을 예측하는 질문 등 다양한 바람 질문을 하였다. 바람의도 과제의 이야기들은 가치와는 상관없는 중립적인 이야기로 바람감정 과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두 과제에서의 아동의 반응을 분석하여 Yuill, Perner, Pearson, Peerbhoy와 Ende(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감정 추론의 발달적 변화를 우리나라 아동들도 보이는지, 악의적 바람의 성취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 반응이 아동의 바람 개념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실험은 충북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세(평균 연령 3년 6개월) 20명(남 12명, 여 8명), 4세(평균 연령 4년 4개월) 21명(남 8명, 여 13명), 5세(평균 연령 5년 6개월) 20명(남 10명, 여 10명), 7세(평균 연령 7년 5개월) 22명(남 12명, 여 10명), 9세(평균 연령 9년 5개월) 20명(남 10명, 여 10명)으로 전체 실험 참가자는 103명이었다.

www.kci.go.kr

실험 과제

바람감정 과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두 과제의 내용과 질문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바람감정 과제에서 아동은 5개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개 이야기는 Yuill(1984)과 Yuill, Perner, Pearson, Peerbhoy와 Ende(1996)의 연구에 근거하여 만들었다. 중립적 바람의 2개 이야기는 주인공의 중립적 바람이 성취되는 경우와 성취되지 않는 경우다. 중립적 조건은 예를 들어 주인공이 특정 아이가 자신의 공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바람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다. 악의적 바람 조건의 3개 이야기는 상대를 해치거나 괴롭히려는 주인공의 바람이 모두 성취되는 이야기다. 악의적 조건은 예를 들어 주인공이 특정 아이의 머리를 공으로 맞히고자 하는 상황으로 바람과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다.

Yuill 등은 3장 그림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는 마지막에 주인공의 얼굴 그림을 추가하여 4장 그림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생각 풍선 안에 표현한 주인공의 바람, 두 번째 그림은 주인공의 실제 행위, 세 번째 그림은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 그림으로 주인공의 얼굴을 제시하고 감정 질문을 하고, 아동이 대답하면 감정의 이유를 물었다. 그 다음 주인공의 감정을 재차 물어보고 아동이 대답하면 역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림의 주인공의 성별과 아동의 성별을 일치시켜 남아에게는 남아 그림을, 여아에게는 여아 그림을 제시하였다.

바람의도 과제

바람의도 과제는 Schult(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2개 이야기와 새로 만든 2개 이야기로 모두 4개 이야기로 구성하였다(표 1). 4개 이야기는 주인공의 의도와 바람을 담고 있는데, 의도는 바람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Schult, 2002; Wellman, 1990).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와 행위가 필요하지만 바람은 의도나 행위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게의 인형을 갖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이 돈을 모은 후 인형을 사려고 가게에 가려고 계획한다. 그 날 저녁에 아빠가 원하는 인형을 사 오신 경우 의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 인형을 갖고자 하는 바람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바람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아동의 수행을 바람감정 과제에서의 수행과 비교하였다.

Schult(2002)는 각 이야기마다 바람, 행위, 결과를 나타내는 3개 그림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는 4개 그림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바람, 두 번째 그림은 의도, 세 번째 그림은 행위, 네 번째 그림은 결과를 나타냈다.

실험 절차

실험 전에 과제의 그림, 설명, 질문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실험용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를 포함한 6명의 실험자들은 사전에 실험 내용과 절차, 프로그램 실행 방법을 숙지한 후 노트북을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인 아동은 헤드폰으로 설명을 듣고 독립된 아동용 모니터에 제시된 과제를 보며 수행하였다. 아동들에게 실시한 바람에 관한 과제들은 모두 7개지만 본 연구에서는 바람감정 과제와 바람의도 과제만 다룬다. 7개 과제를 아동에게 무선으로 제시하였고 각 과제 안에서 문제도 질문도 무선으로 제시하였다. 아동들이 과제 내용이나 질문을 잘 듣지 못한 경우 실험자들이 직접 다시

www.kci.go.kr

표 1. 바람감정 과제와 바람의도 과제

조건			내 용
바람감정과제	중립적 바람	공 (바람 성취)	이 아이는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이 아이는 놀이터에 서있는 녹색 옷을 입은 아이를 보고 공을 던지고 싶었어. 그러면 녹색 옷을 입은 아이가 공을 받을 것 같았어. 이 아이는 녹색 옷을 입은 아이에게 공을 던졌어. 녹색 옷을 입은 아이는 공을 받아 즐겁게 놀았어.
		자전거 (바람 좌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 이 아이는 하늘색 옷을 입은 아이를 좋아해. 자기 자전거로 뒤에서 살짝 부딪히면 하늘색 옷을 입은 아이가 재미있어 할 것 같았어. 이 아이는 하늘색 옷을 입은 아이를 향해 자전거를 달렸어. 하늘색 옷을 입은 아이를 지나쳐서 빨간색 옷 아이의 자전거와 부딪혔어. 그랬더니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는 즐거워했어.
	악의적 바람 (바람 성취)	공	이 아이는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이 아이는 놀이터에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아이를 싫어해. 그래서 이 아이는 공을 던져 파란 옷을 입은 아이의 머리를 맞히고 싶었어. 이 아이는 공을 파란 옷을 입은 아이에게 던졌어. 파란 옷을 입은 아이는 공이 머리에 맞자 울었어.
		자전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 이 아이는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를 싫어해.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 자전거로 세게 부딪히고 싶었어. 이 아이는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를 향해 자전거를 달렸어. 자전거로 세게 부딪히자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리에 상처가 나고 울었어.
		가방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가방을 놓고 놀고 있었어. 이 아이는 연두색 옷을 입은 아이를 싫어해. 연두색 옷을 입은 아이를 놀려주려고 그 아이 가방을 숨기고 싶었어. 이 아이는 연두색 옷을 입은 아이의 가방을 쓰레기 통 안에 감췄어. 연두색 옷을 입은 아이는 자신의 가방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울었어.
	감정 질문		이 아이는 기분이 어땠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감정 이유		아이는 왜 그런 기분을 느꼈을까?
바람의도과제	의도 바람 일치	인라인스케이트 (바람 성취)	이 아이는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해.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를 혼자 타러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혼자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웠어. 아이는 집에 있는 안전모와 보호대를 모두 찾아 쓰기로 결심했어. 아이는 신발장에 있는 안전모와 보호대를 찾아 머리, 무릎, 팔에 썼어. 아이는 혼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갔어.
		연 (바람 좌절)	이 아이는 연 날리는 것을 아주 좋아해. 아이는 지금 연을 날리고 싶어. 그래서 연을 어떻게 날릴지 계획을 세웠어. 아이는 책장에 있는 형의 연을 꺼내 공원에 가기로 결심했어. 아이는 책 장 위에서 형의 연을 꺼내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집 앞에서 형을 만나 연을 뺏기고 말았어.
	의도 바람 불일치	인형 (바람 성취)	이 아이는 인형을 정말 좋아해. 아이는 가게에 있는 새 인형을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인형을 살지 계획을 세웠어. 아이는 자기가 모은 돈으로 가게에서 인형을 사기로 결심했어. 다음 날 아이는 모은 돈을 가지고 가게로 가기로 했어. 그런데 저녁에 아빠가 원하는 인형을 주셔서 아이는 이제 인형을 가졌어.
		그림 (바람 좌절)	이 아이는 엄마의 그림을 그려 엄마에게 드리고 싶어.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지 계획을 세웠어. 아이는 엄마의 멋진 사진을 보며 그대로 그리기로 결심했어. 아이는 엄마 사진을 보면서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어.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남동생이 엄마 그림에 낙서를 해서 그림을 망쳐 놨어.
	생각 질문		이 아이는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니? 무엇을 결심했지?
	행동 성취 여부		이 아이는 하려고 계획한 것을 했니 못 했니?
	이유		왜 그렇지?
	바람 질문		이 아이는 무엇을 바랬니?
	바람 성취 여부		이 아이는 바라는 것을 이루었니 이루지 못했니?
	이유		왜 그렇지?
	감정 질문		지금 이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
	감정 이유		왜 그렇지?

www.kci.go.kr

말해주었다. 아동 당 총 실험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3세 아동들에게 바람의도 과제의 질문이 많고 어려울 뿐 아니라 의도 개념이 흔히 5세부터 출현하기 때문에(Schult, 2002; Wellman, 1990) 바람의도 과제는 4 ~ 9세 아동들에게만 실시하였다. 바람감정 과제를 포함한 6개의 과제는 3 ~ 9세 아동들에게 모두 실시하였다.

실험자들은 과제의 질문들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을 그대로 노트북에 입력하였다. 실험 후 각 과제마다의 기준에 따라 반응의 유목을 구성하고 코딩 북을 만든 후 그에 따라 아동들의 반응을 코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람 과제에서 연령 집단에 따른 수행 차이를 보기 위해 비모수 통계분석방법인 Fisher's Exact Test(FET)를, 두 바람 과제에서의 수행의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딩

바람감정 과제와 바람의도 과제에서 아동은 주인공의 감정을 예측하는데 아동의 감정 반응을 5개 유목으로 나누었다. 긍정적 감정 유목에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같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유목에는 슬프다, 좋지 않다, 나쁘다 같은 부정적 감정, 도덕적 감정 유목에는 죄책감, 미안함, 후회 같은 도덕적 감정, 기타 감정 유목에는 그 이외의 감정들, 마지막 유목에는 모른다거나 무응답 반응을 넣었다. 바람감정 과제에서 감정 예측에 대한 설명을 5개 유목으로 나누었다. 감정의 이유로 공을 받기 바랐는데 받아서, 아이를 맞추고 싶어서 혹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같이 바람을 언급하는 경우는 바람 유목, 공을 던졌다거나 아이가 울어서 같이 행위나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는 행위/결과 유목, 한 일에 대해 미안하다거나 너무 심했다는 식으로 잘못을 언급하는 경우는 도덕성 유목, 그 외의 다른 설명은 기타 유목, 무응답과 모른다는 반응은 한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바람의도 과제에서도 비슷하게 유목을 나누었다. 주인공의 바람이 무엇이었느냐는 바람 질문에 대한 반응을 5개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주인공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언급하면 의도 유목, 바람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바람 유목, 이야기의 주인공의 행동이나 결과를 반복하면 행위 유목,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다른 반응들은 기타유목으로 분류하였다. 무응답이나 모른다는 반응은 하나의 다른 유목으로 넣었다.

결 과

바람의 주관성 개념을 다룬 바람감정 과제에는 중립적 바람과 악의적 바람이 있다(표 2, 표 3).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주인공의 바람이 성취되는 경우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긍정적 감정을 예측하여 의미 있는 연령차는 없었다. 바람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3, 4세는 긍정적 감정을, 5, 7, 9세는 부정적 감정을 예측하였다(Ps = .348, 215, FET).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는 공 이야기에서만 의미 있는 연령차가 났다, $\chi^2(8, N = 93) = 26.05$, ($P < .01$, FET).

Yuill, Perner, Pearson, Peerbhoy와 Ende(1996)는 4개 악의적 바람 이야기 중에서 3개의 반응이 긍정적 감정이면 주관적 입장, 부정적 감정이면 객관적 입장, 도덕적 감정이면 도덕적 입장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3세는 객관적 입장과 주관적 입장이 반반, 5, 7세는 주관적 입장, 12세는 도덕적 입장으로 나타났다. Yuill 등의 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여기서는 3개의 악의적 이야기 중에서 2개의 감정적 반응의 일치에 따라 객관적, 주관적, 도덕

www.kci.go.kr

표 2.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주인공의 감정의 빈도

	바람-결과 일치 (*n*=98)		바람-결과 불일치 (*n*=94)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3	12(63.2)	7(36.8)	11(61.1)	7(38.9)
4	15(78.9)	4(21.1)	11(55.0)	9(45.0)
5	17(85.0)	3(15.0)	9(45.0)	11(55.0)
7	17(85.0)	3(15.0)	5(29.4)	12(70.6)
9	17(85.0)	3(15.0)	6(31.6)	13(68.4)
합	78(79.6)	20(20.4)	42(44.7)	50(55.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퍼센트임.

표 3.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주인공의 감정의 빈도

	공 (*n*=93)			자전거 (*n*=92)			가방 (*n*=89)			입장(*n*=90)		
	부정적	긍정적	도덕적	부정적	긍정적	도덕적	부정적	긍정적	도덕적	객관적	주관적	도덕적
3	14(77.8)	4(22.2)	0	10(55.6)	8(44.4)	0	13(76.5)	4(23.5)	0	11(61.1)	7(38.9)	0
4	10(55.6)	8(44.4)	0	10(58.8)	7(41.2)	0	8(44.4)	10(55.6)	0	10(58.8)	7(41.2)	0
5	9(56.3)	6(37.5)	1(6.3)	9(52.9)	6(35.3)	2(11.8)	8(57.1)	6(42.9)	0	8(57.1)	5(35.7)	1(7.1)
7	3(14.3)	15(71.4)	3(14.3)	5(23.8)	11(52.4)	5(23.8)	4(20.0)	12(60.0)	4(20.0)	2(9.5)	14(66.7)	5(23.8)
9	5(25.0)	10(50.0)	5(25.0)	7(35.0)	9(45.0)	4(20.0)	8(40.0)	8(40.0)	4(20.0)	7(35.0)	9(45.0)	4(20.0)
합	41(44.1)	43(46.2)	9(9.7)	41(44.1)	41(44.1)	11(11.8)	41(46.1)	40(44.9)	8(9.0)	38(42.2)	42(46.7)	20(22.2)

적 입장으로 분류 하였다(표 3). 3세의 61.1%, 4세의 58.8%, 5세의 57.1%가 객관적 입장, 7세의 66.7%, 9세의 45.0%가 주관적 입장으로 나와 연령에 따른 입장의 발달적 변화를 보였다, $\chi^2(8, N = 90) = 20.00$, ($P < .01$, FET). 5세의 7.1%, 7세의 23.8%, 9세의 20%가 미안, 죄책감 같은 도덕적 감정을 표현하여 도덕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3, 4세는 슬프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부정적 감정은 표현해도 도덕적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아동이 주인공의 감정을 예측하면 주인공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유를 물어보았다(표 4, 표 5). 중립적 조건에서 바람과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5세의 78.9%, 7세의 71.4%, 9세의 100%가 바람으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7세의 68.2%, 9세의 55%가 바람의 좌절로 설명하였다. 악의적 조건의 3개 이야기의 반응을 합쳐보면 3세의 46.7%, 4세의 30.2%, 5세의 43.4%가 행위나 결과를, 7세의 54.6%, 9세의 41%가 바람의 성취를 들었다. 3세의 1.7%에 비해 4세의 28.5%가 바람의 성취를 설명하여 3세와 4세간에 바람의 이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7세의 12.1%, 9세의 15.2%가 아이가 울어서 미안하다, 너무 심했다, 잘못했다 같은 설명을 하여 7세 이후부터 바람의 주관성과 더불어 도덕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었다. 5개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또 다른 감정을 느끼는지 물어보고 느낀다면 어떤 이유인지 재차 물어보았지만 아동들의 50% 정도가 모른다고 하거나 무응답 하였고 나온 결과마저 일차 감정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바람감정 과제의 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감정 예측과 감정의 이유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경우 3 ~ 9세 모두 긍정적 감정을 예측하였지만 5세부터 바람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설명하였다.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4세와 7, 9세의 반응이 달랐다. 3, 4세의 경우 긍정적 감정 예측이 더 많다면,

www.kci.go.kr

표 4.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주인공의 감정에 대한 이유의 빈도

	바람-결과 일치 (n=99)			바람-결과 불일치 (n=103)		
	바람	행위, 결과	기타	바람	행위, 결과	기타
3	6(31.6)	5(26.3)	8(42.1)	1(5.0)	7(35.0)	12(60.0)
4	8(38.1)	6(28.6)	7(33.3)	1(4.8)	12(57.1)	8(29.0)
5	15(78.9)	2(10.5)	2(10.5)	8(40.0)	9(45.0)	3(15.0)
7	15(71.4)	1(4.8)	5(23.8)	15(68.2)	6(27.3)	1(4.5)
9	19(100)	0	0	11(55.0)	8(40.0)	1(5.0)
합	63(54.4)	14(14.1)	22(22.2)	36(35.0)	42(40.8)	25(24.3)

주. 기타는 기타 항목과 모름/무응답 항목을 합친 것.

표 5.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주인공의 감정에 대한 이유의 빈도

	공 (n=103)				자전거 (n=103)				가방 (n=103)			
	바람	행위 결과	도덕성	기타	바람	행위 결과	도덕성	기타	바람	행위 결과	도덕성	기타
3	1(5.0)	8(40.0)	0	11(35.0)	0	8(53.3)	0	12(60.0)	0	12(60.0)	0	8(40.0)
4	5(23.8)	7(33.3)	0	8(42.9)	7(33.3)	6(28.6)	0	8(38.1)	6(28.6)	6(28.6)	1(4.8)	8(38.0)
5	6(30.0)	8(40.0)	2(10.0)	4(20.0)	6(30.0)	10(50.0)	0	4(20.0)	6(30.0)	8(40.0)	1(5.0)	5(25.0)
7	15(68.2)	2(9.1)	2(9.1)	3(13.6)	10(45.0)	8(36.4)	4(18.2)	0	11(50.0)	6(27.3)	2(9.1)	3(13.6)
9	10(50.0)	9(45.0)	1(5.0)	0	9(45.0)	5(25.0)	5(25.0)	1(5.0)	8(40.0)	8(40.0)	4(20.0)	0
합	37(35.9)	34(33.0)	5(4.9)	27(26.2)	32(31.1)	37(35.9)	9(8.7)	25(24.3)	31(30.1)	40(38.9)	8(7.8)	24(23.3)

주. 기타는 기타 항목과 모름/무응답 항목을 합친 것.

7, 9세는 부정적 감정 예측이 더 많고 바람의 좌절로 주인공의 감정을 설명하였다. 악의적 바람의 3개 이야기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3, 4, 5세는 부정적 감정을, 7, 9세는 긍정적 감정을 보다 예측하였다. 주인공의 감정의 이유에 대해서도 3, 4, 5세는 행위나 결과를, 7, 9세는 바람의 성취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감정 예측과 감정 이유의 일치는 상관분석에서 잘 나타났다(표 6). 바람감정 과제에서 중립적 바람의 성취 여부에 따른 적합한 감정과 바람 설명의 상관계수가 .560(p < .01)로 나와 감정 예측과 감정의 이유가 높은 일치를 보였다. 악의적 바람 성취에서 긍정적 감정은 바람 설명과 .955(p < .01), 부정적 감정은 행위나 결과 설명과 .686(p < .01)로 감정 예측과 감정의 이유 설명이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긍정적 감정 판단을 한 아동은 바람의 성취에, 부정적 감정 판단을 한 아동은 행위나 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이다.

바람감정 과제의 수행과 바람의도 과제의 수행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바람감정 과제에서의 수행과 바람의도 과제에서의 수행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표 6). 바람감정 과제의 경우 3세 아동들을 포함하여 연령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다시 산출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립적 바람의 성취 여부에 따른 적합한 감정의 추론은 증가(r = .307, p < .01), 악의적 바람의 성취에 따른 부정적 감정의 추론은 감소(r = -.291, p < .01), 중립적 바람 조건과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바람 설명은 증가하였다(rs = .586, 390, ps < .01). 3세를 제외하면 연령과 감정적 추론, 악의적 조건의 바람 설명 간의 의미 있는 정적 관계가 사라졌다. 4 ~ 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바람의도 과제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바람 성취에 따른 긍정적 감정(r = .234, p < .05)과 바람 좌절에 따

www.kci.go.kr

표 6. 바람의도과제와 바람감정과제의 상관 (n=83)

		바람의도과제					바람감정과제					
		긍정적 감정[a]	부정적 감정	바람 바람 설명[b]	질문 행위 설명	바람 성취 여부[c]	중성 바람-감정[d]	악의적 긍정적 감정[e]	바람 부정적 감정	중성-바람 설명[f]	중성-행위 설명	악의-바람 설명[g]
바람 의도 과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048										
	바람 바람 설명	.288*	.253*									
	질문 행위 설명	-.253*	-.192	-.767**								
	바람성취 여부	.492**	.388**	.497**	-.223							
	중성바람-감정	.218	.235*	.254*	-.153	.216*						
바람 감정 과제	악의적 바람 긍정적 감정	-.014	.199	.241*	-.083	.145	.087					
	악의적 바람 부정적 감정	.045	-.162	-.330**	.209	-.192	-.001	-.663**				
	중성-바람설명	.315**	.351**	.504**	-.370**	.504**	.560**	.314**	-.305**			
	중성-행위설명	-.025	-.039	-.269*	.289*	-.204	-.209	-.235*	.418**	-.596**		
	악의-바람설명	.007	.175	.226*	-.112	.132	.052	.955**	-.629**	.341**	-.294*	
	악의-행위설명	.118	-.060	-.120	.134	.021	-.005	-.768**	.686**	-.185	.413**	-.733**
	연령[h]	.234*	.230*	.491**	-.387**	.488**	.117	-.133	-.206	.484**	-.276*	.117
							.307**	.100	-.292**	.586**	-.150	.390**

주. a ~ c 변인은 바람의도과제에서, d ~ g 변인은 바람감정과제에서 나온 것.

[a]: 바람이 성취된 2개 문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합과 바람이 성취되지 않는 2개 문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합(각 0~2점)

[b]: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4개 문제)에 바람으로 설명한 경우의 합과 행위로 설명한 경우의 합(각 0~4점)

[c]: 바람을 성취했는지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4개 문제)에서 정답 한 경우의 합(0~4점)

[d]: 중립적바람조건 2개 문제에서 바람 성취 여부에 따른 긍정적 감정의 반응과 부정적 감정의 반응 합(0~2점)

[e]: 악의적 바람조건 3개 문제에서 바람 성취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반응의 합과 부정적 감정 반응의 합(각 0~3점)

[f]: 중립적바람조건 2개 문제에서 감정의 이유를 바람의 성취/좌절로 설명한 경우의 합과 행위로 설명한 경우의 합(각 0~2점)

[g]: 악의적 바람조건 3개 문제에서 감정의 이유를 바람의 성취로 설명한 경우의 합과 행위로 설명한 경우의 합(각 0~3점)

[h]: 첫 번째 줄 상관의 대상 연령은 4~9세(52~119개월), 두 번째 줄 상관의 대상 연령은 3~9세(36~119개월)

* $p < .05$, ** $p < .01$

www.kci.go.kr

른 부정적 감정의 추론이 증가하였다(r = .230, p < .05).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인공의 바람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바람 설명은 증가하였지만 행위 설명은 감소하였고(rs = .491, -.391, ps < .01), 바람 성취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증가하였다(r = .488, p < .01).

바람의도 과제에서 긍정적, 부정적 감정 예측은 바람이 성취되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대답하는 경우와 모두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rs = .492, 388, ps < .01). 바람의도 과제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 예측은 바람 질문에 대한 바람 설명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rs = .288, 253, ps < .05). 바람의도 과제에서 긍정적, 부정적 감정 판단을 한 아동은 다른 사람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이 성취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적합한 감정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감정 과제의 수행과 바람의도 과제의 수행은 어떤 관계를 보일까.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긍정적 감정을 예측한 아동과 부정적 감정을 예측한 아동은 다른 바람 과제에서 바람에 대한 다른 이해를 보일 것인가. 바람감정 과제의 감정 반응은 모두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설명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중립적 바람 성취 여부에 따라 적합한 감정을 예측하는 아동은 바람의도 과제에서 바람이 무엇인지(r = .254, p < .05), 바람이 성취되었는지(r = .216, p < .05)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악의적 바람 조건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설명과 상반된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 감정은 정적 상관(r = .241, p < . 01)을, 부정적 감정은 부적 상관(r = -.330, p < .01)을 보였다. 악의적 바람 성취에 긍정적 감정을 예측한 아동은 바람의도 과제에서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부정적 감정을 예측한 아동은 바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바람의도 과제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은 바람감정 과제의 중립적 조건의 바람 설명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rs = .315, 351, ps < .01). 그러나 두 과제의 감정 반응간의 상관은 의미 있게 나온 것이 별로 없었다. 악의적 바람 조건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은 중립적 바람 조건의 감정 예측, 바람의도 과제의 감정 예측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중립적 바람의 성취 여부에 따른 적합한 감정 판단이 바람의도 과제의 부정적 감정 반응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r = .235, p < .05).

바람의도 과제에서 바람 설명은 바람감정 과제의 감정 이유와도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다.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감정의 이유로 바람을 설명한 경우는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설명과 정적 상관(r = .504, p < .01), 행위 설명과 부적 상관(r = -.370, p < .01)을 보였다. 반대로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감정의 이유로 행위나 결과를 든 경우는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설명과 부적 관계, 행위 설명과 정적 관계를 가졌다. 악의적 바람 성취에 대한 감정의 이유로 바람을 설명한 경우는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설명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26, p < .05).

논 의

바람은 내적 상태로 그칠 수도 있지만 흔히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뒤따른다.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는 바람을 성취하거나 성취하지 못하거나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단 바람이 성취되면 바람과 바람에 대한 추구는 사라진다. Astington과 Gopnik(1991)은 바람 개념에서 중요한 한 요소가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라

www.kci.go.kr

고 하였다. 바람의 성취 여부는 사람의 특정한 정서와 관련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람을 성취하면 만족하거나 기뻐하고 성취하지 못 하면 슬퍼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다. 기존의 연구들은 감정 예측으로 아동이 바람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전명숙, 김혜리, 1999; Astington & Gopnik, 1991; Lagattuta, 2005; Nguyen & Frye, 1999; Rieffe, Terwogt, Koops, Stegge & Oomen, 2001; Terwogt & Pieffe, 2003; Wellman, 1990; Wellman & Bartsch; 1988; Wellman & Woolley, 1990; Yuill, 1984; Yuill, Perner, Pearson, Peebhoy & Ende, 1996).

바람의 성취 여부에 따른 감정 예측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면, 바람감정 과제의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바람이 성취되는 경우나 성취되지 않는 경우나 모두 감정 예측에서 의미 있는 연령차를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이루어진 경우 3 ~ 9세는 긍정적 감정을 예측하였다.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4세는 긍정적 감정을, 5, 7, 9세는 부정적 감정을 보다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어린 아동이 바람 성취 조건에서 긍정적 감정 예측보다 바람 좌절 조건에서 부정적 감정 예측을 어려워한다는 주장(Harris, Johnsom, Hutton, Andrews, & Cook, 1989)과 일치한다. 중립적 조건에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반응을 합한 경우와 악의적 조건에서 부정적 감정 반응을 연령과 상관을 내면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나왔다. 그러나 3세를 제외하고 4 ~ 9세만을 대상으로 상관을 내면 감정 반응과 연령 간의 의미 있는 관계는 모두 사라졌다. 4 ~ 9세를 대상으로 한 바람의도 과제에서도 바람 성취 여부에 따라 주인공의 감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바람 성취 조건에서 긍정적 감정 반응(r = .234, p < .05)이, 바람 좌절 조건에서 부정적 감정 반응(r = .230, p < .05)이 증가하였다. 정서적 반응과 연령의 관계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두 과제의 감정 판단들 간의 관계를 보면 바람의도 과제에서 바람 좌절에 따른 부정적 감정 반응은 바람감정 과제의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적합한 감정 반응과 정적 상관(r = .235, p < .05)을 보였다. 이 정적 관계는 연령 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바람의도 과제에서 바람 좌절에 따른 부정적 감정 반응이 증가하였다(r = .230, p < .05). 바람감정 과제의 중립적 바람 성취 조건에서 3 ~ 9세의 아동들이 대부분 긍정적 감정을 예측한 반면, 좌절 조건에서 3, 4세는 긍정적 감정을, 5, 7, 9세는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예측하였다. 큰 아동일수록 바람의도 과제와 바람감정 과제에서 바람 좌절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정적 관계가 나온 것이다.

중립적 바람보다 악의적 바람에서 바람의 주관성과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난다고 한다(Yuill, Perner, Pearson, Peebhoy & Ende, 1996). 바람의 주관성을 획득한 아동은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내적 바람과 외적 결과가 일치하면 긍정적 감정을 귀인 한다. 그러나 바람의 주관성을 완전히 획득하지 못한 아동은 주인공의 주관적 마음상태 정보보다 상황의 객관적 정보에 주의하여 부정적 감정을 귀인 한다. Yuill 등의 연구는 이런 감정적 반응의 발달적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Yuill 등의 분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여 3개 입장으로 분류하였는데 연령에 따른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3세의 61.1%, 4세의 58.8%, 5세의 57.1%가 객관적 입장을, 7세의 66.7%, 9세의 45%가 주관적 입장을 보였다. 전체적인 반응 형태는 Yuill 등의 바람의 주관성의 발달적 형태를 지지하고 있다. 즉 연령이

www.kci.go.kr

증가할수록 외적인 규준이나 규칙보다 마음상태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한다(Kalish & Shieverick, 2004).

Yuill 등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본 연구의 반응 형태가 연령상으로 지연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Yuill 등의 연구에서 5세 대부분이 주관적 입장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5세의 35.7%만이 주관적 입장을 보여 오히려 객관적 입장(57.1%)이 우세한 연령으로 나타났다. 5세는 중립적 바람의 좌절 조건에서도 7, 9세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5세는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더 예측하였지만 감정의 이유를 보면(표 4) 바람보다 행위나 결과에 대한 설명이 많아 7, 9세 비해 바람과 결과의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준이 들어간 다른 바람 연구들(Kalish & Shiverick, 2004; Rieffe, Terwogt, Koops, Stegge & Oomen, 2001; Terwogt & Rieffe, 2003)에서 4, 5세의 수행이 규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5세의 바람의 주관성 개념은 아직 취약한 상태인 것 같다. 본 연구에서 5세는 중립적 바람의 성취에서 긍정적 감정을 귀인 하지만 악의적 바람에서는 바람과 결과의 일치보다 부정적 결과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귀인 한 것이다. 여기서 9세의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개 이야기에 대한 감정 반응을 살펴보면 3, 4, 5세는 부정적 감정 반응이 많고 7, 9세는 긍정적 감정 반응이 많았다. 9세의 경우 긍정적 감정이 45%, 부정적 감정이 33.3%, 도덕적 감정이 21.7%로 9세 들어 긍정적 감정은 감소하고 부정적 감정과 도덕적 감정이 증가하였다. 9세에서 부정적 감정의 증가는 바람 개념의 이해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인가.

죄책감, 미안, 후회 같은 도덕적 감정이 나타나고 그런 감정에 대하여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7세부터라고 한다. 이 시기에 바람, 규칙, 감정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발달적 변화가 일어난다. 감정을 예측할 때 4, 5세보다 7세가 규칙과 미래와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고, 주인공의 감정의 원인을 설명할 때 5세보다 7세가 주인공의 내적 마음상태를 명백하게 설명하였다(Lagattuta, 2005). 본 연구에서도 7세 집단이 주관적 입장을 가장 많이 보였다. 바람감정 과제에서의 수행을 보면 중립적 조건에서도 악의적 조건에서도 5세와 7세 집단의 수행은 다르게 나타났다. Lagattuta의 주장대로 7세 들어 인간의 마음상태에 대한 지식과 추론 능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3, 4, 5세의 부정적 감정과 9세의 부정적 감정이 같은 발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9세 들어 부정적 감정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은 도덕적 감정으로 가는 이행 단계에서 나온 반응인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이 맞을지는 앞으로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Yuill 등의 주장대로 악의적 바람 조건의 긍정적 감정 반응이 바람의 주관성 개념을 획득한 것이고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반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바람 과제에서도 그런 수행을 보일 것인지 살펴보았다. 악의적 바람 조건의 긍정적 감정 반응은 다른 감정적 반응과 의미 있는 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적합한 감정 판단은 바람의 성취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악의적 바람 조건, 중립적 바람 조건, 바람의도 과제에서의 감정 예측은 모두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악의적 조건의 부정적 감정이 다른 감정 판단과 관계가 없거나 부적 관계라면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바람의도 과제의 감정 반응과 의미 있는 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근거한 긍정적 감정 반응이 다른 감정 판

www.kci.go.kr

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과는 의외다.

그렇다면 악의적 바람의 긍정적 감정 반응은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인가. 악의적 바람의 긍정적 감정이 다른 감정 반응과 의미 있는 관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바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다. 긍정적 감정 반응은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질문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r = .241, p < .05). 긍정적 감정 반응을 한 아동은 바람의도 과제에서 바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감정은 중립적 바람 조건과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감정 이유로써 바람 설명과 정적 상관, 행위나 결과 설명과는 부적 상관이 나왔다. 특히 악의적 바람 조건의 바람 설명과 상관은 .952(p < .01)로 나와 긍정적 반응을 한 아동들의 대부분이 감정의 이유로 바람을 설명한 것이다.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바람 설명은 중립적 바람 조건에서 바람 설명(r = .341, p < .01)과, 바람의도 과제에서 바람 설명(r = .226, p < .01)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악의적 바람에서 긍정적 감정 반응을 한 아동은 다른 사람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바람감정 과제에서 악의적 바람 성취에 부정적 감정을 예측한 아동들은 미성숙한 바람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객관적 입장을 보이는 어린 아동들은 주인공의 바람 성취보다 부정적 결과에 근거하여 주인공이 슬픈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린 아동들은 바람을 특정 개인과 상황의 관계에서 오는 주관적 특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Yuill, 1984; Yuill, Perner, Pearson, Peebhoy & Ende, 1996). 그러나 악의적 바람이나 비전형적인 장난감 선호 조건에서 어린 아동들의 낮은 수행이 마음이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아동이나 성인이나 마음이론을 획득하였지만 때론 그 이론에 따라 추론하지 않기도 한다. 주인공의 바람에 대한 설명과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식 간에 갈등이 생길 때 바람직한 것에 대한 규준 정보에 의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기도 한다(Terwogt & Rieffe, 2003). 어린 아동들은 어릴 적부터 규칙에 익숙하고 규칙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어린 아동들은 선호도 같은 마음상태보다 규칙이 사람들의 바람과 의도를 이끌고 행동을 이끈다고 생각한다(Kalish & Shiverick, 2004). Kalish 등은 5, 8세 아동들에게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규칙과 선호도가 갈등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규칙일 때 주인공은 나누고 싶지 않은 경우다. 5세 아동들은 8세 아동들과 성인들보다 주인공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고 주인공이 규칙을 따르고 싶어 한다고 판단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반응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악의적 바람에서 부정적 감정 반응은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부정적 감정 반응은 감정 이유로 행위나 결과 설명과 정적 상관(r = .686, p < .01)을, 중립적 조건의 바람 설명과 부적 상관(r = -.305, p < .01)을,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설명과 부적 상관(r = -.330, p < .01)을 보였다. 즉 악의적 바람 조건에서 부정적 감정 반응을 한 아동은 다른 사람의 바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나 사건의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바람감정 과제와 바람의도 과제에서 나온 5개 감정 반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바람의도 과제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바람감정 과제의 중립적 조건에서 적합한 감정 반응은 비슷한 상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3개 감정 반응은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설명, 바람 성취 여부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두 과제에서 적합한 감정을 예측하는 아동은

www.kci.go.kr

모두 다른 사람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바람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아동들은 바람과 결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적합한 감정을 판단하였다. 바람감정 과제의 악의적 조건에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은 바람의도 과제의 바람 설명과 다른 관계를 보였다. 긍정적 감정은 정적 관계, 부정적 감정은 부적 관계를 보여, 긍정적 감정 반응을 한 아동은 바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부정적 감정 반응을 한 아동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하였다. 그러나 두 감정 반응은 앞의 3개 감정 반응과 달리 바람 성취 여부와는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악의적 바람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반응은 바람의 주관성과 객관성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악의적 바람의 긍정적 감정 반응은 부정적 감정 반응보다 바람과 결과의 이해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과 결과의 관계 이외의 다른 요인이 관련된 것 같다. Yuill, Perner, Pearson, Peebhoy와 Ende(1996)은 이런 과제의 수행에는 바람의 개념만이 아니라 도덕적 고려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정적 감정은 도덕적 고려를 포함한 반응이지만 긍정적 감정은 도덕적 고려를 배제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악의적 조건의 긍정적 감정 반응이 다른 과제에서의 감정 판단과 의미 있는 상관이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도덕적 가치를 무시해야 하는 상황과 도덕적 고려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바람과 결과의 이해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 의문은 앞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바람의도 과제에서의 수행을 보면 아동의 바람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들은 바람의 성취나 좌절에 따른 적합한 감정을 귀인하고, 감정 판단의 원인을 바람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바람과 바람의 성취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3, 4, 5세 아동들은 바람의 주관성보다 객관성에 의거하여 감정을 판단하는 편이었다. 바람의 주관성은 7세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Yuill, Perner, Pearson, Peebhoy와 Ende(1996)의 연구에서 5, 7세가 바람의 주관성을 보이는 것에 비해 늦은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주관성 개념의 발달적 변화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규준이나 규칙보다 마음상태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Kalish와 Shieverick (2004)의 주장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도덕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7세부터 나타나지만 Yuill 등의 결과와 비교하여 도덕성을 보이는 아동의 빈도는 상당히 낮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바람 과제들에서의 수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바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늦게 그리고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마음읽기 능력이 왜 늦게 낮게 나오는지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마음읽기 능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혜리(2005). 심리학자로서의 아동: 심리지식의 발달. 인지과학, 16, 29-52.

전명숙, 김혜리(1999). 정서추론으로 살펴본 믿음과 바람에 대한 아동의 이해. 인간발달연구, 6, 102-122.

Astington, J. W., & Gopnik, A. (1991). Developing understanding of desire and intention. In A. Whiten (Ed.), *Natural theories*

www.kci.go.kr

of mind: Evolution, development and simulation of everyday mindreading(pp. 37-50). Oxford: Basil Blackwell Ltd.

Bartsch, K., & Wellman, H. M. (1989). Young children's attribution of action to beliefs and desires. *Child Development, 60*, 946-964.

Bretherton, I., & Beeghl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The acquisition of an explicit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906-921.

Gopnik, A., & Slaughter, V. (199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changes in their mental states. *Child Development, 62*, 98-110.

Harris, P. L., Johnson, C. N., Hutton, D., Andrews, G., & Cooke, T. (1989). Young children's theory of mind and emotion. *Cognition & Emotion, 3*, 379-400.

Kalish, C. W., & Shiverick, S. M. (2004). Children's reasoning about norms and traits as motives for behavior. *Cognitive Development, 19*, 401-416.

Lagattuta, K. 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 713-733.

Moore, C., Jarrold, C., Russell, J., Lumb, A., Sapp, F., & MacCallum, F. (1995). Conflicting desire and the child's theory of mind. *Cognitive Development, 10*, 467-482.

Moses, L., Coon, J. A., & Wusinich, N. (2000).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 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6*, 77-90.

Nguyen, L., & Frye, D. (1999). Children's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desire, belief and emotion with social referents. *Social Development, 8,* 70-92.

Peterson, C. C. (2003). The social face of theory of mind: The development of concepts of emotion, desire, visual perspective, and false belief in deaf and hearing children. In B. Repachoili & V. Slaughter (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pp. 171-196). NY: Psychology Press.

Rieffe, C., Terwogt, M. M., Koops, W., Stegge, H., & Oomen, A. (2001). Preschoolers' appreciation of uncommon desires and subsequent emo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9-274.

Schult, C. A. (2002).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intentions and desires. *Child Development, 73*, 1727-1747.

Terwogt, M. M., & Rieffe, C. (2003). Stereotyped beliefs about desirability: implications for characterizing the child's theory of mind. *New Ideas in Psychology, 21*, 69-84.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Bradford.

Wellman, H. M. (1991). From desires to beliefs: Acquisition of a theory of mind. In A. Whiten (Ed.), *Natural theories of mind: Evolution, development and simulation of everyday mindreading*(pp. 19-38). Oxford: Basil Blackwell Ltd.

Wellman, H. M., & Bartsch, K. (1988). Young children's reasoning about beliefs. *Cognition, 30,* 239-277.

Wellman, H. M., Cross, D., & Watson, J. (2001).

www.kci.go.kr

Meta-analysis of theory of 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72*, 655-684.

Wellman, H. M., & Lagattuta, K. H. (2000). Developing understandings of mind. In S. Baron-Cohen, H. Tager-Flusberg, & D. Cohen (Eds.), *Understanding other minds: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pp. 21-49). NY: Oxford University Press.

Wellman, H. M., & Liu, D. (2004). Scaling of theory of mind tasks. *Child Development, 75*, 523-541.

Wellman, H. M., & Woolley, J. D. (1990). From simple desires to ordinary beliefs: The development of everyday psychology. *Cognition, 35*, 245-275.

Yuill, N. (1984). Young children's coordination of motive and outcome in judgments of satisfaction and moralit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73-81.

Yuill, N., Perner, J., Pearson, A., Peerbhoy, D. P., & Ende, J. (1996). Changing understanding of wicked desires: From objective to subjective and moral.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 457-475.

1차 원고 접수: 2007. 7. 16
수정 원고 접수: 2007. 8. 12
최종게재결정: 2007. 8. 1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7. Vol. 20, No. 3, 1-18

Young Children's Changing Understanding of Desires and Emotions

Hae-young Yang Hei-Rhee Ghim Kyung-mi Kim Jai-sun Koo Eun-Hy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yung-Sook Chung
Kkottongnae Hyundo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examined children's changing understanding of desires and emotions by using the two tasks requiring the knowledge of the relations between desires and outcomes. When children judged the emotion of an actor committing a desired but immoral act, 3-, 4-, and 5-year-olds, acknowledging the objective values of outcomes, attributed negative emotions to ill-actors, but 7- and 9-year-olds, understanding the subjectivity of desires could judge ill-actors pleased with the success at their wrongdoing. Positive emotional respons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xplanation of desires for the reason of an actor's emotion, while negative emotional respons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xplanation of an actor's action or a part of a story. However, children' positive emotions on wicked stories were not correlated with emotional responses on neutral stories and on the desire-intention task, which were assumed to require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 between desires and outcomes. Positive emotions on wicked desir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negative emotions on wicked desir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planation of desires for the question of desire on the desire-intention task. Positive emotion responses seemed to reflect the subjectivity of desires while negative emotion responses were likely to come from young children's the immature understanding of desires.

key words: theory of mind, desire, emotion, subjectivity

www.kci.go.kr